

5차원 에너지와 물질 (2부)

| 월터 라스트 | 안영민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맥동하는 에너지장인 보텍스의 미세 펄슨들이 물질화의 근저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발현·비발현주기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이 지난 호에 이어집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물리적 현상

자력

전자구름을 묶어주고 순환시키는 거대한 보텍스(vortex)의 회전 때문에 우주와 별무리의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전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자기장이 존재하며, 천체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대한 초은하 펄스(super-galactic pulson)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또 2개의 행성 보텍스(소용돌이)로 인해 우리 행성에도 자기장이 결과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보텍스의 가장 밀집된 부분에 자극(磁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펄스(맥동하는 에너지장) 보텍스 진동인 지구 자극극의 이동 및 역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 펄스 보텍스는 2차적으로 마그마의 흐름을 이동시키고 순환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림 1) 우리 행성의 자기축이 회전축에서 이탈되는 것은 우리 행성의 보텍스가 태양계 보텍스나 행성 내부의 에너지 구조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데이비스와 롤스(A.R. Davies & W.C. Rawls)의 “생물에 있어서 자력과 그 효과(Magnetism and its Effect on the Living System)” 를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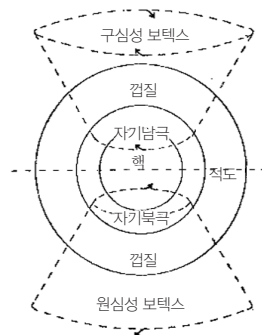


그림 1. 쌍둥이보텍스로 물질화된 장(場)

펴보면 자력의 보텍스적 본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리포트 저자들은 음극선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자석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촬영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선의 형태가 아니라, 회전하는 작은 케이블형태로 에너지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이런 케이블 형태는 튜브모양의 펄스이나 토네이도 같은 펄스의 늘어진 돌출부와 상호 작용한다. N극에서 방출된 케이블은 S극에서 방출된 좌회전 케이블에 반대된다. 이와 비슷한 효과로 태양흑점이 만들어 진다는 이론도 있다.

모든 항성 몸체의 회전이나 입자들의 회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성의 회전은 쌍둥이 펄스 때문이다. 행성회전의 관성 때문에 자축에서 벗어나서도 행성은 장시간 계속 회전할 수 있다. 고유 주파수를 가진 펄스의 비발현 부분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내부 시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또 원자나 수정의 전자기적 진동의 배후에도, 항성몸체의 에너지 진동에도, 태양 주변부의 진동에서도 발견되고, 흑점의 사이클과 자극역전의 배후에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주파수와 공간-밀도에 따라 결정된다.

쌍둥이 펄스의 장기간 발현-비발현 주기는 한 개체의 생사 주기에 영향을 준다. 더 물질화되고 오래된 몸체일수록 그것의 장(場)의 극성은 더욱 감소하여, 쌍둥이 보텍스는 회전 제어력을 잃고 서서히 속도를 늦추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몸체에 부착되기 위한 충분한 극성이 없는 쌍둥이 보텍스는 죽은 몸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별무리 몸체에서는 이것이 회전력의 상실 뿐만 아니라, 별무리의 자기성 및 진동과 내부에너지 생산능력의 상실을 뜻한다. 모든 별무리의 몸체는 중간장(middle field)이 비물질화 되고, 비어있거나 '부드러운데' 이런 현상은 특히 달과 포보스(Phobos) 위성 같이 죽은 항성 몸체에서 분

명하게 언급된다.

목성의 달

여러 개의 전자껍질을 가진 원자는 감소하는 공간-밀도를 가진, 서로에게 중첩된 여러 개의 원자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진 큰 행성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성은 세 그룹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앙의 행성장과 3개의 추가적인 장 및 그에 따른 8개의 자기극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자기극은 각 그룹의 평균 기울기에 대하여 다소간 수직성을 띤다. 중앙의 자기장은 밀도가 더 높아서 다른 장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전체 극성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다른 장의 극성을 역전시킨다.

이것은 제1위성그룹의 두 번째 장의 극성이 첫 번째 장, 즉 중앙의 장과 반대극으로 어울림을 의미한다. 세 번째 장은 중앙의 행성장과 부분적인 인력이 작용하지만 동일한 극성을 띤 두 번째 장과는 척력이 작용한다. 이런 현상은 그 위성의 28도(degree) 평균 경향성을 강하게 증가시킨다.

두 번째 장은 최외곽에 있는 네 번째 장을 역전시켜 자신과 반대극을 띠도록 한다. 그로 인해 네 번째 장은 중앙의 장과 같은 극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정렬은 외곽 위성들이 역행자전 하게 만든다. 즉, 이런 정렬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토성에서도 볼 수 있는 인식 가능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토성은 3개의 위성을 가진 위와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유사한 연구는 다른 달 체계에도 적용된다.

그러다 항성의 몸체가 나이가 들수록, 극성의 정도는 줄어들게 되고, 자신의 보텍스나 다른 행성장 혹은 달의 장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오래된 행성이나 달은 그것의 자기축으로부터 큰 편차

를 가지고 회전운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의 극성보다는 중력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금껏 항성 규모의 별에서 극성의 존재를 무시했던 이유는 충분히 물질화된 몸체와 작거나 존재하지 않는 극성이 항성 규모에 선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항성의 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물질화의 초기단계 몸체에 중점을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흑점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이 이론의 가치는 태양 흑점 활동을 해석할 수 있다는데 있다. 태양흑점의 주기는 약11년이다. 흑점들은 그룹으로 나타나며, 태양광구(photo sphere)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 떠다닌다. 이 그룹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초기 흑점과 후기 흑점으로 구성된다. 주도적인 흑점은 더 크고 오래간다. 주도적 흑점 한 쌍은 그에 대응하여 뒤따르는 흑점 한 쌍의 자기적 극성과는 반대를 띤다. 게다가, 극성의 분포를 보면 태양의 남반구 극성은 북반구 극성과 반대를 띤다. 매년 11년의 주기에 따라 흑점은 양쪽 태양 반구의 극성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주기의 첫 흑점은 남반구나 북반구의 위도 30~35도 부근의 고위도 지역에 출현하지만 후기 흑점은 7도 부근에서 출현한다. 태양 흑점의 회전 방향은 태양 채층(彩層: 태양광구면 주위의 백열가스층)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연속적인 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태양 흑점은 회전 방향을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 행성의 저기압 체계에서처럼 모든 태양 흑점은 북반구의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고 남반구와 방향 상 반대로 회전한다.

전통적인 천체물리학자는 이러한 태양 흑점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

했으나 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 태양 흑점의 11년 주기는 태양 보텍스의 발현-비발현과 관련이 있다. 발현 상태에서 고압장(구심성 펄스 소용돌이에 의해 야기된 고압력의 장) 보텍스와 저압장(원심성 펄스 소용돌이에 의해 야기된 저압력의 장) 보텍스 사이의 난류는 딸 보텍스를 만들게 되고 그것의 장이 태양 흑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태양 보텍스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 때는 발현 상태의 초기이고 가장 가까울 때는 말기이다. 이것은 흑점 주기에서 태양 흑점 발현이 낮은 위도에서 진행되는 것을 설명해준다. 각각의 태양장은 반대 극성의 태양 흑점을 서로 묶어주고 각각의 고유 회전을 유지시키게 한다.

이들은 더 크고 선도적인 흑점들이다. 이 확립된 흑점들은 반대 극성을 가진 흑점을 끌어당긴다. 유사한 극성을 가진 태양장에서 이런 추가적인 흑점 보텍스들은 압축되어 있어서 좀더 작아 보인다. 그러나 선도적 흑점처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 이런 회전은 흑점을 독립된 존재로 유지하게 한다.

발현주기 말미에 적도에 도달하게 되면 태양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비발현화 되고, 태양 보텍스는 즉시 반대 극성을 띄고 발현을 시작한다. 또 이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태양 흑점의 극성은 바뀐다. 태양 보텍스는 회전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태양 흑점 역시 다음 흑점 주기 동안에 각각의 반구에서 동일한 회전을 유지한다.

타 부위보다 좀더 어두운 흑점 그룹을 둘러싼, 항성광도가 증가하는 불규칙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태양 흑점 특징은 광대하다. 이런 태양 백반은 최초의 흑점 출현 몇 시간 전에 출현하고, 수 주일 후까지 남아있다. 이것은 태양 흑점 장에서 극성이 같은 입자들의 폭발로 가능하다. 고압장의 흑점은 전자를 끌어당기고 양자를 밀어낸

다. 저압장은 양자를 끌어당기고 전자를 밀어낸다.

질량활동법칙 이론에 따르면 이 현상은 수소원자가 양자와 전자로 분해되도록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인해 태양 흑점 안에서 온도는 낮아지고, 더 어두운 외관으로 만든다. 태양 흑점 주변으로 집중되는 입자의 증가로 인해 수소 형성이 가속화된다. 이런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온도를 상승시키며 태양 백반의 광도를 증가시킨다.

중력

보텍스 에너지는 우주의 주요 에너지라고 가정된다. 기존의 쌍둥이 보텍스 사이 공간에서, 더 높은 공간-밀도를 가진 딸 보텍스가 생성된다. 이 과정은 모든 차원에서 항상 발생하고, 다양한 크기, 다양한 공간-밀도의 새로운 펄스를 지속적으로 생성, 공급한다. 이 과정이 기반을 두고 있는 쌍둥이 보텍스 사이의 난류는 쌍둥이 펄스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배출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따라서 외부에서 미세 펄스를 끌어들이 에너지를 보충해야만 한다. 이 과정으로 인해 이미 연결된 다른 극성의 미세 펄스에 의한 중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결합된 에너지는 쌍둥이 펄스의 에너지 저장소로 전달될 수 있다.

중력에 적용해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펄스(타키온)과 미세 펄스 이 물질 속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항성의 두 물질 사이 혹은 하나의 물질과 행성표면 사이에 펄스 농도를 낮추고, 외부로부터 온 고압력 펄스로 하여금 물질들 간의 거리를 좁히거나 행성표면으로 향하게 한다. 이런 에너지 흐름은 양자 수준 혹은 에테르 수준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도 논쟁 중인, 중국 과학자의 한 측량에 따르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동안 달이 태양-지구 사이의 중력 인력을 차폐하여 지구의 중력 수준에 미미한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펄슨 모델은 실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기존의 중력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만약 달-태양이 나란히 존재하고 이들 천체로 향하는 에테르 흐름이 증가하면 조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높은 중력적 인력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에테르 흐름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지구에 인접한 에테르 에너지 농도는 증가한다. 이것이 중력측정계와 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종종 보고되는 반중력 효과이다.

우리는 더 일반적으로 물질과 행성 표면사이에 에테르 펄슨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반중력 효과는 증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회전판에 적절히 정렬된 전하나 자기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펄슨 이론은 물질우주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주변의 공간-밀도 레벨이 낮은 곳으로부터 그것이 응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폭발이라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액체의 결정화 과정과 유사하다. 이것은 은하와 물질의 생성과 소멸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원자와 입자들

(그림 2)는 수소 원자와 반수소원자의 극성 분포를 보여준다. 몇 개의 전자껍질로 둘러싸인 큰 원자는 몇 개의 전자장이 존재하고, 각각의 전자장은 서로 중첩되어 존재한다. 각각의 추가적인 껍질은 공간-밀도가 낮아지는 순으로 인접하여 존재한다. 핵심 저압장은 추가적인 장과 함께 더 압축되고 이로 인해 극성이 더 강해진다.

이것은 핵심에 더 많은 양성자를 묶어두고, 핵심 저압장의 결합 중성자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한다. 핵 중심에서 중성자의 변형이 강하게 진행될 때, 저압장은 전자처럼 밀려난다. 이것은 고압껍질에 과잉의 극성을 공급하고 고압 껍질을 양성자로 만들어준다.

전자는 원자장의 중심부와 동일한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강하게 베타 복사선을 방출한다. 원자밀도 레벨에서 보면 전자는 원자 고압장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자신을 둘러싸거나 묶음으로써 극성에 조화를 이룬다. 거꾸로, 양성자가 원자장을 떠나면 원자의 저압 중심 일부로 둘러싸여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양성자와 전자는 쉽게 재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다. 전자가 기본적으로 극성을 띤 에테르장인 것처럼 그것은 전자구름으로 그려질 수 있다. 중성미자는 광자에 비교해볼 때 원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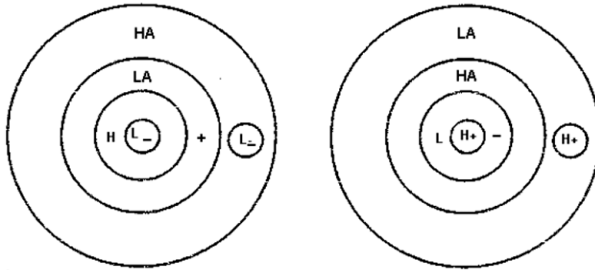


그림 2 수소원자(좌)와 반수소원자(우)

H : 입자수준의 고압장
 HA : 원자수준의 고압장
 + : 양전하

L : 입자수준의 저압장
 LA : 원자수준의 저압장
 - : 음전하

레벨의 비물질화된 쌍둥이 펄슨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원자 레벨의 밀도를 가진다.

현재까지 성공적이지는 않으나, 이론 물리학자들은 “통일장 이론”

혹은 “만물 이론”으로 불리는, 기존의 4가지 힘을 결합시키는 이론을 발전시키려 애써왔다. 이런 4가지 힘들 사이의 연관성은 펄슨 이론으로 논리적 이해가 가능하다. 핵력 혹은 강력(強力)은 핵자의 고압껍질에 존재하는 원자장의 저압 중심이 가진 결합력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경입자 렙톤(lepton)을 통제하는 약력(弱力)은 원자장의 고압껍질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강력 혹은 약력과 전자기력, 중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펄슨 이론의 초기 힘의 설명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 번째 물체의 껍질에서의 압력 변형은 주변을 향해 일정하게 기울지 않는다. 대신 높거나 낮은 극성의 중심이 동일한 링을 형성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 링의 극성은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감소한다. 극성이 증가하는 링은 위성 혹은 파편의 궤도로 우선 선택된다. 이런 링은 원자의 경우 전자의 다양한 양자 상태에 해당한다.

광자의 입자 효과는 입자의 발현 국면에서 전기장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광자의 파동효과는 그것의 보텍스의 진동 때문에 발생한다. 광자는 마치 제트기처럼 공간을 통과한다. 즉, 선도하는 보텍스의 초입부분에 미세 펄슨을 빨아들여 마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후발 보텍스의 말미 부분에서 뱉어낸다. 광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그 보텍스의 회전과 진동은 더 빨라진다. 각각의 진동을 가진 광자의 회전방향의 전환으로 인해 사인과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현상은 데이빗 보姆(David Bohm)의 양자이론에서 파일릿 파(波)와 맥락을 같이한다. 쌍슬릿을 이용한 간섭실험에서 양자장의 미세 펄슨으로 파동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광자의 2개 펄슨이 각각 서로 다른 슬릿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같은 이론으로 원자 입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물질화된 물체에 덧붙여, 이들은 파동효과를 만들어내는 진동하는 극성역전을 가진 펄

이런 현상은 데이빗 보(David Bohm)의 양자이론에서 파일럿 파(波)와 맥락을 같이한다. 쌍슬릿을 이용한 간섭실험에서 양자장의 미세 필슨으로 파동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광자의 2개 필슨이 각각 서로 다른 슬릿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슨을 가지고 있다. 양자 이론의 많은 혼돈은 배에서 보려하거나 배가 만들어내는 파도입장에서 보려는데 있다. 그 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계다가 양자실험에서 뒤엎힌 두개 광자 사이에 일어나는 동시적인 의사교환은 두 광자가 구체화되는 수퍼장 내의 극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수퍼장은 항상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혹은 중립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하나의 입자 혹은 광자가 양자 상태를 바꾼다면, 그것은 다른 광자로 하여금 반대상태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의 발전과 신비들

여기서는 최근의 발전상황과 여전히 신비에 싸인 것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수레바퀴와 유사한 모양을 가진 은하 회전은 일반적으로 암흑 물질 때문이라고 가정된다. 필요한 약 10%의 물질만이 현재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필슨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회전은 은하 쌍둥이 보텍스에서 시작된 은하의 수퍼장(場) 회전 때문에 발생된다. 일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 수퍼장(場)은 에테르 레벨에 존재한다. 이런 에테르 수퍼장(場)의 회전은 동일한 혹은 비슷한 속도를 가진 별과 물질을 청소한다.

렌즈를 통해 발견된 “암흑 물질”은 에테르 물질로 가정할 수 있다. 지구의 장은 궤도를 가지고 선회하는 위성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관찰

된다. 전통적으로 이 현상은 상대성 이론을 확정짓는 것으로 보이나 펄슨 이론에 의하면 이 현상은 행성의 에테르 쌍둥이 보텍스의 회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성이론은 고정된 에테르 이론과만 불일치를 보일뿐 펄슨 이론에서 제시한 유동적 에테르에서는 불일치가 없다. 에테르장은 구체적인 물질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블랙홀은 큰 몸체의 중력 붕괴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어진다. 이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블랙홀을 선회하는 물질과 별들이 속도는 빠르나 방출되는 빛은 없는 점이다. 그러나 펄슨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매우 강한 구심성 에테르 보텍스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을 나선형을 그리며 내부로 끌어당기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거대한 우주 싸이클론을 상상할 수 있다. 더 작은 블랙홀은 우주 토네이도와 유사하다.

펄슨 이론에 따르면 우주와 각각의 은하는 동량의 물질-반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은하껍질에 존재하는 별과 태양계는 그 중심에 반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물질-반물질의 분포는 은하 중심에서 뒤바뀐다. 은하 중심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더 많은 반물질 구름은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이런 구름들은 은하 수퍼 보텍스로부터 방출된다. 물질-반물질 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감마선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관찰되어 왔다. 우리 은하 내에 수많은 미확인 감마선의 출처는 최초의 별 형성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반물질 반응 지역을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태양 내에 모든 에너지가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중성미자가 없다면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것은 중간장에서 물질-반물질 반응에 기반을 둔 태양의 다른 혹은 추가적인 에너지 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

관찰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 에너지의 대부분은 반중력 특성을 가진 암흑에너지라고 가정된다. 이것은 물리적 우주로 유입되는 고차원의 에너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 에너지는 중력을 거스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헬톤 아프(Halton Arp)와 다른 이들은 약한 적색편이 은하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강한 적색편이 준성(quasars)을 찾아냈다. 이것은 천문학상 적색편이는 항상 퇴화하는 항성 때문에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설명에 모순된다. 양자화된 적색편이의 분포는 이런 일반적인 설명을 확증한다.

대안적인 설명을 보자면 적색편이는 공간-밀도와 극성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공간-밀도와 강한 극성을 지닌 에테르장의 원자는 강한 적색편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는 전혀 팽창하지 않고 서로 다른 에테르 공간-밀도와 강한 극성을 가진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천체 물리학의 일반적인 모델에 틀린 점이 있다는 것이 현재 허블 관측으로 보여진다. 물질이 아주 가까이 있든 수 억 광년 멀리 있든 차이가 없고, 거리가 먼 빛과 물질 사이에 마치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선명하다는 것이다.

중성자별은 중력 붕괴로 인한 초신성 폭발의 잔여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중성자별이 대략 10% 정도의 초신성에서만 관찰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펄슨 이론에 따르면 초신성은 중심이 껍질과 반응할 때 물질-반물질의 내부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다. 이런 현상은 별의 수퍼장이 조기에 출발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성 몸체의 노화가 진행되는 동안 수퍼장은 매우 천천히 비발현된다. 이런 비발현 속도는 중심과 껍질 사이에 발열반응 조절을 유도

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얇은 껍질만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빈 내부를 지닌 채로 남게 된다.

기하학적 천문학 패턴의 발견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하수에서 붉은 정사각형으로 발견되는 것은 양극 성운으로 불리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모래시계 모양의 구름으로 묘사된다. 또 횡단하는 모양은 양끝에서 끝으로 이어진 두개의 원뿔형을 띠고 있다. 이런 형태는 항성의 쌍둥이 펄스의 윤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유사한 외형은 붉은 직사각형 성운과 토성 북쪽 극점의 육각 형태에서도 관찰 할 수 있다. 유사한 기하학적 모양은 회전하는 유체가 진동할 때 형성된다. 이런 현상은 기하학적 천문학 형태가 천문학적 보텍스 사이 회전하거나 진동할 때 발생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성의 쌍둥이 펄스는 극성을 전환하면서 발현-비발현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회전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자기 극성의 주기적인 역전을 유도한다. 그러나 두 보텍스는 반대 회전방향으로 완전히 비발현과 재발현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행성의 회전 역전 현상에 매우 짧은 주기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최근 발견에서 6200만 년~6500만 년마다 기존 종의 멸종과 새로운 종의 출현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이런 현상은 약 650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 이런 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 태양계가 6200만 년~6500만 년 마다 주요한 파동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발현 시기는 많은 종의 멸종을 유도하고, 새로운 발현 시기는 새로운 종의 출현을 촉진한다.

최근의 놀라운 발견에서 물에 녹는 모든 물질들은 물질 간 인력이 더 강해지고, 용액이 더 희석될 때는 무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


방브니트스는 예전에 항체를 가졌던 물 구조의
희미한 각인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각인은
특정 구조와 공간-밀도에서 펄슨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이런 현상은 극성 매질인 물은 낮은 공간-밀도 상태의 펄슨장들을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물에서 이런 장들은 수명이 짧은 무리를 형성하거나 물분자 영역을 형성한다. 고농도 용액에서 이들 장의 극성은 완전하게 보상되고, 따라서 분자나 이온의 움직임에 영향력이 미비하다. 그러나 강하게 희석된 용액에서는 이런 장은 자유롭게 극성화되어 있고 이런 극성은 용해된 입자를 잡아당긴다. 유사한 기전은 1998년 네이처 지(Nature)에 등재된 방브니스트(Benveniste)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물 기억효과(memory of water)'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방브니트스는 예전에 항체 혹은 히스타민에 노출된 용액이 계속 백혈구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예전에 항체를 가졌던 물 구조의 희미한 각인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각인은 특정 구조와 공간-밀도에서 펄슨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이런 실험은 마텔라인 에니스(Madeleine Ennis : Inflammation Research, vol 53, p181)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동일한 원리가 동종요법의 기반이다. 여기서 자연 물질의 저밀도장은 그 물질의 다른 한쪽에서 분리된다. 더 많이 희석된 용액일수록, 유리된 장에서 극성은 강해지고, 잠재적인 치료 효과도 강해진다. 이런 효과는 자연 물질에서만 존재하고 합성 유사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한 몸체의 주관적인 시간은 그것의 쌍둥이 펄슨의 진동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의 쌍둥이 펄슨은 미세 펄슨에서 그 몸체를 형성

하는 에너지 변화에 차례로 영향을 받는다. 몸체의 객체적인 시간은 그 시스템의 수퍼 펄스의 진동 주파수, 발현된 몸체의 회전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발현된 몸체의 회전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은하, 태양, 행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발현단계와 전(前) 물질화 시간(주관적인 시간) 동안은 시간이 물질화-비물질화 시간과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강한 비보상된 극성을 지닌 발현 에테르 보텍스에서 시간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인 시간은 앞으로 진행하는 반면 발현된 보텍스에서는 거꾸로 진행한다. 따라서 보텍스의 힘에 따라 우리의 시간은 늦춰질 수도 있고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 (끝) 

- 이 글은 저자의 허락을 받고 'Energy and Matter In Five Dimensions'를 번역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월터 라스트(Walter Last)** | 월터 라스트(Walter Last)는 영양학과 자연치료를 실행하면서 화학자, 영양학자, 독물학자(毒物學者)로서의 훈련과 연구경험을 결합하였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라이프슈발트, 쾰른, 뮌헨 대학의 의학연구소에서 연구와 독물학 조사 분야에서 일해 왔다. 그는 쾰른에서 주임 법 화학자였고 LA의 생물학 실험실에서도 일했다. 70년 그는 뉴질랜드에 정착하였으나 약에 기반을 둔 의료에 불만족하여 자연치유사로 임상을 했다. 1981년 이래 퀸즈랜드에 살고 있으며 난치병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연의학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자연치유법을 많은 영역에서 조사하고 실험해왔다. 월터 라스트는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치유의 음식들', '치유를 위한 자연스런 방법 - 최상의 건강을 얻기 위한 65가지 방법'의 저자이다. 또 '자가 암치유' 도서들에 주요 기고자이다. 그의 최근의 책은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시리즈이다. 그의 웹사이트 : <http://www.health-science-spirit.com/>

역자 | **안영민** | 서울대학교 이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현재 대학에서 물리학 강의중.